

<가문장아기>에 구현된 여성인물의 형상과 특질

하 경 숙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계약제 교수)

- I. 머리말
- II. <가문장아기>의 특질과 의미
- III. <가문장아기>에 형상화된 여성인물의 양상
 1. 주체적 삶의 의지
 2. 모험자의 면모
 3. 풍요의 상징
- IV. <가문장아기>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특성
- V. 맺음말

<국문 요약>

제주도 무가 ‘삼공본풀이’에 나타나는 <가믄장아기> 이야기는 여성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제주도의 여성신들은 강인하면서도 주체적인 성격과 행동을 보여주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이런 여성신의 성격 배경에는 강인한 생활력을 바탕으로 하는 제주 여성들의 실제 삶과 연관이 있다.

<가믄장아기> 서사에는 대상과 공감하는 능력, 상대방과 타인을 끌어안는 포용력, 인내와 독립성 등의 가치가 두드러진다. 이처럼 <가믄장아기>는 수동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유연한 사고의 행동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여성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서 기인하는 여성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결핍된 존재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사회의 결핍을 해소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으로서 질적 변화를 겪은 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재탄생은 기존 사회의 질서에서 벗어난 이면의 또 다른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믄장아기>의 서사 속에는 한 여성이 시련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의 회복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련(一連)의 과정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여기에 <가믄장아기> 서사가 지속적으로 전승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그 유장한 서사의 질곡과 여러 세계관에 대한 포용력, 가믄장 아기가 가지고 있는 재생력, 강인한 생명력과 구원의 이미지가 민중들에게 많은 희망과 위안을 주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가믄장아기, 여성, 신화, 제주도, 모험.

I. 머리말

신화(神話)의 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있다. 1) 제주 무속신화(巫俗神話)는 세계 보편적인 모험 모티프를 지니면서,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 친연성과 독립 의식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신성성을 이해하게 된다. <삼공본풀이>는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본풀이 중 일반본풀이에 속하는 것으로 전상신의 내력담으로 알려져 있다. 전상이란 전생(前生)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생의 팔자(八字) 또는 업보(業報)를 설명하며 삼공신은 인간 생애에 있어서 나쁜 전상과 좋은 전상에 관여하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 2) 제주도 무가 ‘삼공본풀이’에 형상화된 <가문장아기> 이야기는 여성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인간이 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무가에서는 본풀이라고 한다. 제주도의 여성신들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지니며 무기력하지 않고 활동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여성신이 지닌 특성은 강인한 생활력을 요구하는 제주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있다.

셋째 딸이지만 집안을 일구고 헌신했지만 부친의 문답놀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난 가문장아기가 자신의 배우자를 고르고 혼인을 하여 가정생활을 하다가 거지로 전락하고 거기다가 장님이 된 부모를 위해 잔치를 열고 그들과 재회하기까지의 인생 역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독립적이고 강인한 여성인 <가문장아기>는 우리 고전서사에서 찾기 어려운 여성인물로 학계에서도 그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문장아기>는 사람들의 행위와 마음에 따라 전상을 달리 내림으로써 선과 효를 강조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전상, 운

1) 조지프 캠벨 · 이윤기 역, 『신화의 힘』, 고려원, 1992, 81쪽.

2)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탐라문화』 1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31~32쪽.

명(運命)을 관장하는 전상신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가문장아가 제시하는 전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용기와 지혜이다.³⁾

또한 <가문장아기>는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의 가치관에 구속되어 혈육의 정을 끊게 되는 고통을 당해야만 한 여성의 의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쫓겨나는 딸’이라는 인물형을 주목하여 주제적인 자아의식과 성장, 여성의 입사담 및 영웅 신화적 특성을 거듭 조명하였다.⁴⁾ 전승의식과 관련하여 설화 ‘내 복에 산다’와의 의미를 주목한 연구, 무속(巫俗)과의 신(神)과 인간(人間)의 동질적 시선에서 작품이 가지는 신성의 특질을 살핀 논의 등이 이루어져 왔다.⁵⁾ 최근에 주목할

3) 안효정,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54쪽.

4)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제18집, 충남대학교 어문연구회, 1988.; 현승환, 「내 복에 산다」系 說話 研究,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윤교임, 「여성 영웅신화연구: 초공본풀이·삼공본풀이·세경본풀이에 대한 문화기호학적 해석」,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김영숙, 「삼공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의미」, 『한국언어문학』 제44권, 한국언어문학회, 2000.;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미숙,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집'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7.; 이인경, 「<가문장아기>와 <리어왕>의 주제적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2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8.;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 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 - '딸'의 원형적 이미지 분석과 '효' 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 제9권, 한국여성철학회, 2008.; 박영선, 「민담 <내 복에 산다>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心性研究』 제25권 2호, 한국분석심리학회, 2010.; 신연우, 「여성담담층 관점에서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의 문학·사상의 의미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1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안효정,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권복순, 「<가문장아기>와 <자칭비>의 겨루기 양상과 다문화성 연구」, 『배달말』 제51권, 배달말학회, 2012.; 김신정, 「무속신화와 여성의 몸」, 『여성문학연구』 제27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5) 신동훈,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개념의 단면 신과 인간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 43집, 비교민속학회, 2010, 349~377쪽.

만한 연구는 <가쁜장아기>를 오늘날 시대정신에 맞는 <삼공본풀이> 재해석의 접점을 ‘가쁜장아기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으로 보는 견해이다.⁶⁾ 또한 <가쁜장아기>에 대한 연구는 여성·지역·노동·공동체의식 관점으로 다양한 가치에 집중하여 신화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현(再現)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가쁜장아기>에 반영된 사회상은 물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인 가쁜장아기가 겪는 사건, 배경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한편 여성인물이 지닌 특질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과거인들의 의식 세계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여성들이 가진 역할과 그 의미양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II. <가쁜장아기>의 특질과 의미

한 편의 설화 속에 포함된 삶의 양상은 단순히 고정(固定)되어 전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집단이 처한 상황과 세계관의 의미에 따라 서로 대립과 충돌을 가져오고, 때로는 화합의 역동적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⁷⁾ <가쁜장아기>는 그 내용이 상당히 상징적이고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가쁜장아기’라는 인물이 평범하지 않으며 많은 상징을 지니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추정하건데 이는 매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인물로 많은 영향력을 지녔다. 그 서사는 다음과 같다.

1. 윗마을 옷상실의 강이영성이서불과 아래 마을 제상실의 흥은소천궁에 궁전 궁납 두 거지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
2. 남의 품팔이를 하면서 사는 중에 은장아기, 늦장아기, 가쁜장 아기의 세 딸

6) 고순덕, 「아동극에서 제주무속신화의 희곡화 과정 연구 : '가쁜장아기'의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7)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82~85쪽.

을 낳고 점차 부자가 된다.

3. 15세가 되자 딸들을 불러 놓고 문답을 하는데,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는 물음에 하늘님덕, 지하님덕, 아버지 덕, 어머니 덕도 있지만, '내 배꼽 밑에 있는 선의 덕' 대답한 가문장 아기가 불효하다하여 쫓겨난다.
4. 쫓겨나는 가문장아기에게 거짓말을 한 언니들이 가문장 아기의 주문으로 각각 청지네와 용달버섯으로 환생하고, 부모는 장님이 되어 거지가 된다.
5. 집을 떠난 가문장아기가 굴미굴산 작은 초막의 세 아들 중 막내아들과 혼인한다.
6. 막내아들이 마 파던 곳에 구경을 간 가문장아기는 그 곳에서 금을 발견하여 부자가 된다.
7. 가문장 아기가 부모 생각이 나 거지 잔치를 벌여 부모를 찾고, 부모가 눈을 뜬다.⁸⁾

<삼공본풀이>는 거지 부모에게서 태어난 가문장아기가 아버지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가문장아기를 버린 부모들은 눈이 먼 거지로 전락한다. 쫓겨난 가문장아기는 조근마통이를 만나 금을 발견해 부자가 되고 거지잔치에서 부모를 만난 가문장아기는 부모의 눈을 뜨게 하고서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전상차지 신으로 좌정(坐定)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쫓겨남은 존재변화를 의미하는 격리단계로 잠재된 신성을 발현하는 의미로 보여지며, 이는 무속신화가 지닌 여성성이 근원적 생명력으로 추앙되던 신화적 관념을 보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⁹⁾

가문장아기는 출생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환경에 굴하지 않는 독립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녀는 부모의 물음에 있어서 자신의 덕으로 인해 잘 산다고 이야기한다. 어려운 환경 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보살핀 자식에 대해서 쏟은 공(功)을 인정받고 싶은 부모는 자신의 행위발신이 부모의 덕보다는 자신이 지닌 복과 생명에서 기인한다는 대답에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가문장아기는 현상을 직시하고 본래적인 의미를 이야

8) 현용준·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9) 강진옥,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여성의 존재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기하는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주체적인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자각한 것이다. 가문장아기는 무엇보다 배꼽과 부여된 복을 믿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모습은 둘 다 여성의 모습으로 태어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 속의 충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로부터 탈피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부모로 설명되는 완성된 기존 상황에 대해 순응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주체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¹⁰⁾ 그러나 부모가 지닌 시선에서 본다면 자식이 부모의 덕이 아닌 자기 자신의 덕에 의해 잘 산다는 말은 상당히 반감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가문장아기의 부모가 눈이 멀게 되는 이유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¹¹⁾ 부모를 떠난 후 가문장 아기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는 더욱 강화된다. 전통 사회에서 혼인의 대부분은 부모가 배우자를 선택해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가문장아기는 자기가 전적으로 남편을 선택한다.

또한 남편감을 평가하는 기준을 물질(物質)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신(精神)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선택하였다. 아울러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수동적이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힘으로 남편을 선택한 후 자신이 지닌 뛰어난 안목으로 남편을 성공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녀는 부모의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목으로 배우자를 결정하고 자신이 지닌 의지로 부자가 된다. 이에 그녀는 거지로 전락한 한 부모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곧바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신들의 처지에 관해 설명하도록 이끄는 것은 부모가 스스로의 문제를 자각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탐색(探索)하도록 이끌고 있다. 가문장아기는 부모에게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그녀가 남편을 선택하는 조건

10) 김신정, 「무속신화와 여성의 몸」, 『여성문학연구』 27호, 여성문학연구학회, 2010, 46쪽.

11)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 『한국여성철학』 9권, 한국여성철학회, 2008, 21쪽.

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긍정하고 비중을 둔 것은 전통 사회의 ‘효(孝)’와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녀가 남편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편이지 이것을 통해 남성에게 의존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여성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상황에서 택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Ⅲ. <가문장아기>에 형상화된 여성인물의 양상

무속신화 속에서 여성이 지닌 의식은 자신의 몸을 세계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의 관념에 의해 세상의 질서와 남녀 존재에 굴하지 않고 신체적 열세(劣勢)의 문제를 부여하지 않으며 인간을 만물과 더불어 우수한 존재로 설명하고, 모든 사물에 다양한 질서를 가하고 있음을 이해하고자 한다.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이전 세계와 분리되면서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극복한 이후 새로운 존재로 형상화되어 사회에 재통합되는 분리, 전이,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제주도는 내륙과 달리 모계 중심의 원시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여신(女神)의 행동과 태도는 매우 활동적이고 능동적이다. 또한 인간이 농경(農耕)과 목축(牧畜)을 시작하며 재산을 저장하고 불러 나가는 것에 대한 신화적 재현이며, 외부의 질서, 부모와 남성들의 질서 속에 존재를 인정받고 그 의미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여된 출생의 능력과 복(福), 운명(運命)을 받아들이는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여성들을 강조하고 있다.¹²⁾ 가문장아기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여성이다.¹³⁾

1. 주체적 삶의 의지

가문장아기는 보통 여성들과 다른 매우 특수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지

12) 김신정, 위의 논문, 52쪽.

13)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114쪽.

않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가문장아기의 특수성은 여성의 평범한 삶을 수용하지만 그 속에서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문장아기가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주체적인 자아 정체성의 형성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가문장아기는 전통시대 여성들이 대부분 가부장(家父長)적인 관계에 소외되고 억눌렸던 것과는 달리, 아버지나 남편과의 사이에서 독립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곧 여성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의 주도권을 형성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가문장아기는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던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을 찾고, 그리고 주어진 미래에 대하여 살아가야 방법을 홀로 터득하고 이끌어간다.

가문장아기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이 지닌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 스스로가 지닌 능력에 대한 수용, 생의 주체(主體)로서의 자각과 능동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남편을 선택하는 안목과 금(金)을 알아보는 혜안, 부모와 해후하여 그들의 개안(開眼)을 돕는 포용력 등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전통사회가 지닌 수동적인 여성관과는 달리,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가문장아기는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과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¹⁴⁾

가문장아기의 부모가 질문한 ‘누구 덕으로 먹고 사느냐’에 답을 통해서 그들은 부모의 은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완성된 효라고 생각하지만, 가문장아기의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효(孝)는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는 것,

14) 이유경,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의미」, 『한국어와 문화』 6집,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2008, 225쪽.

즉 자식이 독립성을 갖으며 자신의 인생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복을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통해 역동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타고난 복’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삶에 있어서 주체적인 인식과 인간의 행복과 삶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문장아가 자신의 힘으로 남편을 선택하고 집안을 일으키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여성이 스스로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여성들에게도 실천적인 의미를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 가문장아기는 강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아버지의 질서를 거역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아찾기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탐색의 과정에서 구원을 통해 아버지의 세계를 흡수통합 함으로써 완벽하게 자신의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아(自我)찾기를 실현하게 된다.¹⁵⁾ 대체로 기존의 서사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지만 이 서사에서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가문장아기는 비극적인 인물인 동시에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전환하는 것으로 주체적 삶의 의지를 설명한다. 결국 가문장아가 단순히 비극적 주인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극복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승화시키고 보다 높은 차원의 완성된 존재로 탈바꿈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모험자의 면모

<가문장아기> 서사는 한국 최고의 스토리 원천으로 대중들에게 무안한 상상력과 흥미를 주는 의미있는 문학작품이다. 대체로 전통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여성성과 행동방식은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규명

15)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9쪽.

된 이데올로기가 보편적으로 여성들에게 스스로의 선택을 배제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서사에서 가문장아기는 이러한 외형적 요구로 인한 억압을 극복하고 주위의 시선에 집착하지 않고 의연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 가문장아기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타인(他人)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헤쳐 나가고 있다. 단순히 남성에 의해 자신을 보호하고 위장하며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제도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도하고 개척하는 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자신이 여성이라는 한계에 머무는 상황에서는 주체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자(他者)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지닌 상황과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간직한다.¹⁶⁾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주체가 되려는 욕망(慾望)의 근원을 그들의 타고난 능력에서 찾고자 한다. 이처럼 초월적 삶과 현실의 삶을 표상하는 존재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던 단서를 추적한다면 <가문장아기> 서사의 미학적 기반은 한층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언제나 사(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여성은 무시되고 어머니나 아내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하지만 가문장아기는 이런 여성 억압의 기제를 뚫고 남성들에게만 허용되어 왔던 공(公)적인 영역에서 멋진 활약을 펼친다. 무속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전승되어 왔고 이중에서도 특히 무가(巫歌)는 줄곧 여성 문학으로 전승되어 왔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남편을 택한 가문장아기는 마 파는 곳에 구경을 가자고 하여, 그곳에서 작은 마통이가 자갈이라 하여 버린 것을 살펴보니 모두 금덩이와 은덩이였다. 가문장아기는 작은 마통이가 돌인 줄 알고 버렸던 금(金)덩이와 은(銀)덩이를 발견하여 부자(富者)가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작은 마

16) 이지하,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국문학연구』 16권, 국문학연구학회, 2007, 41쪽.

통이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금과 은을 가문장 아기가 알아보고 활용하여 부자가 되기 때문이다. 가문장아기는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금과 돌을 구별하여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자신의 지혜롭고 현명한 안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문장아기는 자신을 내쫓은 부모를 찾기 위해 거지 잔치를 열고 잔치에 온 부모에게 ‘청감주 든감주’를 마시게 하여 눈을 뜨게 하는데, 이로써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주관해 나가는 능력을 보임과 동시에 외형적 사항으로 인한 억압을 배제하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의연하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모험자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가문장아기가 ‘금’을 획득하는 과정은 자신을 버린 사회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의를 인정받는 자격 획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가문장아기의 출현은 여성인들의 독립적 결정권과 능동적인 활동을 계승한 새로운 유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 여성은 세상에 나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도움을 주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가문장아기의 경우 스스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후 결국은 부모의 눈을 뜨게 하는 등 생명의 근원을 강조하고 있다.

3. 풍요의 상징

본래적인 신성성을 유지하면서 근원적 여성성의 발현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삶 전체를 총괄하는 능력을 말한다. 근원적 여성성은 여성 자신의 본래적인 기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신의 여성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과 믿음이 여성이 지닌 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원적 여성성은 생산성(生産性)과 풍요성으로 나타나며 여성이 지닌 원초적인 생명력이 능력으로 연결되어 발현되는 것이다.

이 서사가 전승되는 제주도라는 지역은 해안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생활은 언제나 위협에 처해있고, 바다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신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여성신에 대한 서사가 많은 것들도 생명의 풍요에 대한 기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집을 나올 때 검은 암소에 짐을 싣고 나오게 되는데, 검은 암소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달과 관련이 있는 동물로서 주로 달의 여신이 지닌 모성적인 면모가 암소로 재현되며, 달은 주기적 변화가 여성의 월경과 임신에서의 변화와 상통하고 또 농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적인 풍요를 상징한다고 여겨진다.¹⁷⁾ 암소는 농경사회(農耕社會)에서 농사일을 돕고, 생산을 하는 경제력과 권력의 상징이다. 단순히 사람을 도와 농사일을 하는 것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암소라는 것을 주목해야하는 것은 노동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다산의 풍요로움을 설명하는 것이다. 가문장아기가 데리고 나오는 검은 암소는 가문장아기가 지니고 있는 생산성과 풍요를 상징하여 가문장아기의 생산신으로서의 성격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핍된 존재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사회의 결핍을 해소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으로서 질적 변화를 겪은 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재탄생은 기존 사회의 질서에서 벗어난 이면의 또 다른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특수한 사항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여성신의 재생이나 재생 능력의 증가는 여성의 생산신적 양상과 다르지 않다. 곧 재생(再生)을 기반으로 한 신직 부여가 삶과 죽음의 문제 곡식의 종자 획득 등과 관계 속에서 여성신이 지닌 생산적인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 화산이나 잣은 바람, 가뭄과 같은 어려운 자연의 제약은 여성의 독립적 개체성을 절대적으로 수용하였다. 소규모의 작업 양상을 띄는 밭농사는 여성을 주체적으로 변모시켰고 여성들은 해녀(海女)가 되어 경제력을 축척하고자 했다. 이처럼 경제적 획득은 그녀들이 자립적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가문장아기> 서사에서는 여성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통

17) 에스터 하딩·김정란 역, 『사랑의 이해-달 신화와 여성의 신비』, 문학동네, 1996, 90~94쪽.

해 기존 사회와 대립하지 않고 조화롭게 상생(相生)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여성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한다. 이 점을 통해 고대사회의 여성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IV. <가문장 아기> 나타난 여성인물의 특성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우 본래 숨어있는 존재라 할 수 있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드러낼 여유가 없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여성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보여지지 않는다. 여성은 비교적 최근까지 주변인으로 존재해왔다. 여성은 자율적인 존재로서 여겨지지 않으며, 인류(人類)의 역사에서 남성 주체(主體)가 지배하는 사회의 타자로 존재해왔다. 그러한 사회 구조에서 여성은 세상에 나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도움을 주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가문장아기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경험한 후 자신의 힘으로 새롭게 삶을 개척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고난이나 역경의 극복노력을 외부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삶의 주체가 되는 뛰어난 인물이다.

뛰어난 능력은 도술(道術), 예지력(豫知力), 지혜(智慧), 용기(勇氣) 등이 되겠는데 그 능력이 일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모두 그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거나 실패한 경우에 실천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역시 비범(非凡)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¹⁸⁾ 한국의 무속신화 속 여성 신을 표현한 양상은 여성들에게 희생이나 결과물을 얻고자 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가 잘 나타난다. 무속신화는 가부장적 가족 서사로 구성되거나 변모양상을 보이는데 여성 신들의 여신 되기에 희생을 통한 서사의 원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은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에서 자신들은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심리적인 거리감이 여성과 사회 간의 이질감을 가

18) 정경민, 『여성이인 설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4쪽.

저오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여성들을 보호하는 방식이나 희생의 방식으로 기존 체제에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¹⁹⁾

가문장아기는 이질적인 문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투쟁한다. 아버지로 대변되는 세대(世代)간의 갈등을 보여주며 두 번째는 언니로 설명되는 기득권(既得權)과의 갈등을 겪는다. 또한 외부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과 문화적 차이를 알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쫓겨난 딸의 신분에서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 그들과 화합한다. 나아가 불화(不和)를 겪었던 아버지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남편과 동일한 선상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가문장아기> 서사에는 상상력을 한껏 발휘하여 면밀히 해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 서사는 인간이 자기극복을 통해 신이 되어가는 과정인 셈인데, 이를 시각을 달리 해서 보면, 평범한 인간에게 부딪친 어렵고 고난에 찬 상황을 무사히 극복했을 때에야 초월적 존재로 상승할 수 있음을 주제로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역설적으로 부모의 득안(得眼)을 시키는 이야기의 근저에는 ‘효’라는 전통 사상에 기대 있어 서사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²⁰⁾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섬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내륙문화와 분명히 구별이 되었고 그들의 개별성을 찾아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이 잘 나타난 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만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당위로서의 ‘이미지’에 의해 억압받는데 이러한 ‘여성 이미지’는 남성들의 시선에 의해 편파적(偏頗的)으로 왜곡된 것이다.²¹⁾ 대체적으로 남성들은 외부적인 상황에서 극복할 힘을 보여주는데 반해 여성은 지혜의 근원적 에너지로서

19) 조현설, 「동아시아에 나타난 여신창조원리의 지속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1~30쪽.

20) 정연정, 「서사무가와 소설의 구조적 상관관계 연구 - 서사무가 「바리공주」와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5,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0, 189쪽.

21) 김혜숙 외, 『여성과 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9, 105~108쪽.

남성의 것으로 치부되는 현상적 힘을 가하는 숨은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은 드러나지 않는 지혜의 대변자로 현실을 지탱하는 생산력의 근원이고, 풍요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여성과 남성은 그 활동 부분이 같지 않고 여성과 남성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여성은 단순히 남성에게 대응되는 인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의 모습과 활동 범주에서 그 특수성을 찾아야 한다. 유독 독립성을 지니고 지혜로우며 적극적인 여성 가문장아기의 등장은 여성신들의 원초적 생명력을 계승한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오직 힘겨운 고통을 꼭 참고 견디기도 하고 자신이 스스로 혜안(慧眼)으로 난국을 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전투적이고 폭력적이며, 지략과 음모 등을 쉽게 표현하는 남성적 영웅들과 분명히 변별되는 것이다. 가문장아기의 삶에 있어 대응에는 대상과 공감하는 능력, 상대방과 타인을 수용하는 자애로움, 끈기와 독립성 등의 가치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가문장아기의 여성적 영웅의 특질은 한국의 많은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여성(여신)들과 같은 모습으로, 남성 중심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품 안에서 공동체를 완성하는 여성의 포용력으로 세계를 인식하려는 무속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²²⁾ 가문장아기는 가부장적 질서와 현실에 얽매인 삶을 거부하고 한 인간으로 분명한 자아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했고 이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문장아기는 남성의 도움이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삶의 양상을 수용한다. 자신이 성취해야 할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한다. 운명에 굴하지 않으며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준다.

여성성과 관련된 전형적인 특성들은 감성적(感性的)·감정적(感情的)·이타적(利他的)이고 관계 중심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제로 여성

22) 강혜선, 「서사무가(敍事巫歌) <바리공주>의 여성적 리더십 연구」, 『돈암어문학』 25집, 돈암어문학회, 2012, 111쪽.

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는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여성다운’ 행위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에 대해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는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적인 측면을 강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문장아기는 이러한 수동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유연한 사고의 행동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여성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서 기인하는 여성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가문장아기의 서사속에는 한 여성이 시련과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움으로의 회복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련(一連)의 모습으로 설명된다.

여기에 <가문장아기> 서사가 지속적으로 전승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그 유장한 서사의 질곡과 여러 세계관에 대한 포용력, 가문장아기가 가지고 있는 재생력, 강인한 생명력과 구원의 이미지가 민중들에게 많은 희망과 위안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공을 초월하여 문화적 환경이나 다양성에도 굴하지 않고 <가문장아기> 서사가 지닌 특수성이나 의미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축소(縮小)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새로운 해석과 방법으로 서사와 주제를 확장하고 있으며 그 위치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V.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가문장아기> 서사 속에 투영된 여성적인 모습에 집중하고 사회적·문화적 문맥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진취적이고 개성적인 여성의 면모를 특히 집중하여 서사가 지니고 있는 관계적 가치를 풀어보고자 모색하였다. 이는 단순히 가문장아기가 <삼공본풀이>에 담긴 단순하고 신이(神異)한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사회에 대한 해석과 특수성이 담겨져 있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서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신이 지닌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족, 경제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남성신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런 여성신의 면모 등은 제주도 여성이 지닌 사회 경제적 기반에서 비롯되며 이는 생활 환경이 수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주의 여성신들은 주로 창조부터 운명, 농경과 풍요, 치병(治病)을 주로 관여하였다.

가문장아기는 한국의 전통사회의 보편적인 여성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매우 이성적이며 확고한 자기표현을 보여준다. 삶에 대한 주체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을 강조한다. 이 서사에서는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나 인내와 희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강조하고 있다. 남성에 비해 우월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긍정의 존재로 형상화한다. 자신을 저버린 부모를 회생(回生)시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의 운명을 당당히 개척하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전진하는 모습을 통해 기존의 여성성과는 분명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이는 거친 바다와 척박한 땅을 일구며 그들과 상생(相生)한 제주의 여성이 지닌 '지혜와 노력'의 한 단면이며 산물(産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사회는 남성의 주도 하에 움직였으나 여성성을 존중하였으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고전 서사문학 작품에 투영(投影)했다. 가문장아기의 행보를 본다면 전통사회의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특성까지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여성이며 타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수용하여 적극성을 펼치는 여성이기도 하다. <가문장아기> 서사는 여성인물이 지닌 생활이나 시대상황의 특수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에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참고 문헌>

- 조지프 캠벨 · 이윤기 역, 『신화의 힘』, 고려원, 1992.
- 강혜선, 「서사무가(敍事巫歌) <바리공주>의 여성적 리더십 연구」, 『돈암어문학』 25집, 돈암어문학회, 2012.
- 현승환,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탐라문화』 1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 안효정, 「<삼공본풀이>의 서사와 전상의 의미」,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황인덕, 「<내복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무가의 상관성」, 『어문연구』 제18집, 이유경, 「여성영웅 형상의 신화적 원형과 서사문학사적 의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 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 - ‘딸’의 원형적 이미지 분석과 ‘효’ 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 제9권, 한국여성철학회, 2008.
- 김신정, 「무속신화와 여성의 몸」, 『여성문학연구』 제27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 신동훈, 「무속신화를 통해 본 한국적 신 개념의 단면 신과 인간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 43집, 비교민속학회, 2010.
- 고순덕, 「아동극에서 제주무속신화의 희곡화 과정 연구 : '가문장아기'의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송효섭,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지하,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국문학연구』 16권, 국문학연구학회, 2007.
- 에스터 하딩·김정란 역, 『사랑의 이해-달 신화와 여성의 신비』, 문학동네, 1996.
- 정경민, 『여성이인 설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정연정, 「서사무가와 소설의 구조적 상관관계 연구 - 서사무가 「바리공주」

와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5,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0.

진은진, 「여성탐색담의 서사적 전통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현화, 「홍계월전의 여성영웅 공간 양상과 문학적 의미」, 『한민족어문학』 7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조현설, 「동아시아에 나타난 여신창조원리의 지속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허남춘, 「제주 서사무가에 담긴 과학과 철학적 사유 일고찰」,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2008.

현용준 · 현승환 역주,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K C I

Abstract

Shape and Characteristic of a Woman Figure Incarnated in <Gameunjang Baby>

/ Ha Kyung Suk(Sun Moon Univ.)

<Gameunjang Baby> story appearing in 'Samgongbonpuri', a shamanism song of Jeju island shows a new aspect of the woman. Goddesses of Jeju island are active ones who show not only strong but independent character and behavior. Such goddesses' characteristic backgrounds are relevant to real lives of Jeju women who have strong ability to maintain their livelihood.

In the description of <Gameunjang Baby> was the value remarkable such as broad-mindedness embracing the other party and other people, patience and independence etc. Like this, <Gameunjang Baby> breaks from inactive stereotype to show active and positive flexible action of thinking. Through this, femininity caused by the experience which the woman experienced as a woman is standing out. This makes them reborn as a new existence after undergoing change in quality as a woman, the existence which is not lacking but resolving the lack of the society. And their rebirth can be considered as valuable in the sense that it escapes from the order of existing society to orient another world.

First of all, in the description of <Gameunjang Baby> a series of process where a woman escapes from trial and suffering and shows the recovery of newness and possibility appear clearly. It seems that The power that <Gameunjang Baby> description could be succeeded and maintained continuously is because such long lasting description's fetters, broad-mindedness embracing various outlooks on the world, its own regeneration ability, strong ability to maintain livelihood and the image of relief gave people a lot of hope and comfort.

Keywords: Gameunjang Baby, the woman, myth, Jeju island, adventure.